

## 중국어 존현문의 의미 구조와 논항실현

李 修 珍\*

<目 次>

I. 들어가기	III. 존현문의 의미 구조와 논항실현
II. 동사 사건의 의미 구조	IV. 나가기

### I. 들어가기

논항은 동사나 형용사가 정보적인 면에서, 통사적인 면에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충 성분이다. 이는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 형성의 핵심적 작용을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며 그들의 정보 내용이 문장의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에 관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때, 동사와문 형용사의 정보내용은 논항의 수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논항(들)은 해당 언어의 기본적 통사구조로 실현될 것이다. 예를 들어 ‘來’라는 동사의 정보에 따르면 이 동사는 ‘누가’, ‘어디에/어디로’라는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므로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실현될 수 있다.

- 1) a. 警察昨天來了我家。  
경찰이 어제 우리 집에 왔어요. (CCL 코퍼스)

그러나 ‘來’가 언제나 위와 같은 논항 구조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며 때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로 아래와 같은 논항 구조를 취하기도 한다.

b. 我家昨天來了警察。

우리 집에 어제 경찰이 왔어요.

중국어의 경우 존재 혹은 실현이나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문장을 구성할 때, 1-b)와 같이 행위주가 문미에 위치하는 특수한 논항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논항구조 패턴으로 실현되는 일련의 문장들은 존현문으로 분류된다. ‘來’가 두 개의 다른 논항 구조를 가진다면 각 논항 구조는 여전히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

최근 생성어휘론의 연구는 일련의 동사들이 동일한 통사적 형태를 (이러테면 논항 패턴과 같은) 가지고 실현될 때, 거기에는 어떤 공통의 의미적 특징이 작용함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존현문과 같은 동일한 논항 패턴에는 어떤 의미적 특징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 의미적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동사의 상(相), 논항 구조, 사건 구조가 주요 연구 과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어가 문장으로 형성될 때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합성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문장에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작용점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작용점은 바로 문장의 ‘의미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의미 구조에서 논항의 실현 형태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고에서는 존현문의 특수한 논항 구조 또한 동사의, 혹은 문장의 의미 구조와 관련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존현문의 특수한 논항 실현 형태와 존현문의 의미 구조간의 상관성이 있다는 전제아래 의미 구조의 유형을 추출하고 그 상관성을 살피는 것이다.

## II. 동사 사건의 의미 구조

문장의 의미를 사건 구조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Vendler(1967)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Vendler에 따르면 동사는 동작(activity), 상태(state), 달성(achievement), 완성(accomplishment)의 네 가지 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하나의 동사가 반드시 이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며, 논항이나 부가어의 결합관계에 따라 다시 다른 형태로 굴절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는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이에 상(相)은 동사의 범주에 한정되지 않고 동사구나 문장 전체가 제시하는 일종의 명제적 상황 유형(situation types)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다시 사건 구조(event structure)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즉, 문장 층위에서 제시하는 상(相)이 사건 구조와 개념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Dowty(1979)는 사건 구조의 분석을 위해 어휘의 의미 구조를 ACT, BECOME, CAUSE 등의 기초 술어(primitive predicates)를 이용하여 형식화하였다.

- i) 상태(state) :  $P(x_1, \dots, x_n)$
- ii) 행위(activity) :  $DO(x_1, P_n(x_1, \dots, x_n))$
- iii) 달성(achievement) :  $BECOME(P_n(x_1, \dots, x_n))$
- iv) 완성(accomplishment) :  $CAUSE(\Phi, BECOME(P(x_1, \dots, x_n)))$

Levin and Rappaport(1995)는 이를 더 발전시킨 ‘어휘 의미 형판(template)’의 개념으로 사건 구조를 아래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형식화는 Vendler의 4가지 상(相)에 근거하여, 이 상적 의미가 통사부로 사상(mapping)될 때 일정한 연계(linking) 규칙을 통해 동사의 논항 구조와 관련 맺게 됨을 알려주고 있다.

- i) 행위 : [xACT<MANNER>]
- ii) 상태 : [x<STATE>]

- iii) 달성 :[BECOME[x<STATE>]]  
 iv) 완성 :[xCAUSE[BECOME[y<STATE>]]] 혹은  
 [[xACT<MANNER>]CAUSE[BECOM[y<STATE>]]]

Levin and Rappaport는 동사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고자 하였다. 동사가 의미적으로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결정하게 되는 구조 부분(structural part)과 동일한 하나의 부류 속의 동사들을 다시 구분하게 하는 특징 부분(idiosyncratic part)으로 나눈 것인데 전자는 기초 술어의 결합에 의해서 표현되며, 후자는 내용어(constant)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 때 기초술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COME, CAUSE 등을 의미하고 내용어는 상태(state), 장소(place), 태도(manner) 등을 의미한다. 동사의 의미는 기초 술어에 의해 정해진 형판과 내용어가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화 과정을 통해 앞서 언급하였던 세 가지 요소-동사의 상(相), 논항 구조, 사건 구조의 상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의미 구조는 동사 혹은 형용사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구조적으로 표상해서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sup>1)</sup>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이라는 것은 술어와 기타 부가어, 논항과의 구조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술어의 상적 의미와 부가어, 논항의 통사적 실현이 서로 밀접하게 상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장의 상이 논항이나 부가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Levin and Rappaport는 ‘형판 첨가(template augmentation)’로 설명한다.

- 2) a. Phil swept the floor.  
 필립이 바닥을 닦았다.  
 b. Phil swept the floor clean.  
 필립이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Levin and Rappaport: 1996)

1) 이에 대한 논의로 Vendler(1967), Pustejovsky(1991, 1995), Levin and Rappaport (1996, 2005) 등이 있다.

2)의 a)는 단순 구조로 ‘행위(activity)’를 나타내지만 b)의 경우 ‘clean’이 첨가되면서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된 복합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b)의 어휘 기술 형식에는 ‘clean’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형편이 첨가되어 나타나야 한다.

- 2') a. [Phil ACT <MANNER = sweep> the floor]  
 → b. [Phil ACT <MANNER = sweep> the floor] CAUSE [BECOME  
 [the floor <STATE = clean>]]]

Phil이 닦는 행위는 사건의 ‘원인’ 부분에 해당하고 바닥이 깨끗하게 변한 것은 ‘결과’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a)의 경우 이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단순 사건이지만 b)의 경우 여기에 결과 부분의 사건이 첨가되므로 이를 나타내줄 형편이 첨가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논항의 성질이나 위치 또한 같은 원리로 작용하여 문장의 사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sup>2)</sup>

2) 동사의 사건 구조는 논항을 수식하는 접미사로, 혹은 중심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도 변형될 수 있다. 우창현(2003:230)은 동사 이외 구성 요소들이 문장의 상에 역할을 하는 예를 아래와 같이 보여준다.

- 1) a. 철수는 친구를 만나고 있다.  
 b. 철수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  
 2) a. 철수는 약을 먹고 있다.  
 b. 철수는 매일 약을 먹고 있다.

위의 예는 하나의 술어와 하나의 논항 구조 패턴을 가진 두 개의 문장이 각각 접미사와 부사어의 삽입으로 인해 문장의 상과 사건 구조가 각각 다르게 실현됨을 보여준다. 1-a)는 동사의 진행 형태로 행위(activity)를 나타내고 있는데 1-b)에서 보듯 논항에 ‘들’이라는 접미사가 결합되자 반복의 상 의미가 확인된다. a)가 실제 사건에 대해 단순히 행위(activity)만을 나타낸다면 b)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상태(state)를 형성하게 된다. 2) 또한 마찬가지이다. 2-a)는 행위(activity)를 나타내지만, 2-b)는 ‘매일’이라는 반복적 의미의 부사어로 일종의 습관문을 형성한다. 이 습관문 또한 구체적인 동작 행위의 묘사라기보다 주어 논항의 습관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문장은 상태(state)의 사건 구조 형태를 가지게 된다.

- 3) a. 一鍋飯吃十個人。  
냄비 하나의 밥은 열 사람이 먹을 수 있다.  
b. 十個人吃一鍋飯。  
열 사람이 냄비 하나의 밥을 먹는다.
- 4) a. 一條板凳坐三個學生。  
결상 하나에 학생 세 명이 앉는다.  
b. 三個學生坐一條板凳。  
학생 세 명이 결상 하나에 앉는다.

두 문장의 a)는 술어가 동작동사이지만 동태성은 보이지 않는다. 문장이 행위주의 동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두 논항의 수용 정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문두 논항의 '상태(state)'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b)는 문두의 행위주가 하게 되는 동작을 설명하고 있다. a)와 b)의 비교를 통해, 두 문장이 각기 다른 사건 구조로 기술될 수 있다면 그것은 두 논항의 성질과 통사적 위치가 매개 변수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 아래와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 3') a. 一鍋飯吃十個人。→ [一鍋飯<STATE=十個人能吃>]  
b. 十個人吃一鍋飯。→ [十個人ACT<MANNER=吃一鍋飯>]
- 4') a. 一條板凳坐三個學生。→ [一條板凳<STATE=三個學生能坐>]  
b. 三個學生坐一條板凳。→ [三個學生ACT<MANNER=坐一條板凳>]

오충연(2006:28)은 논항과 문장의 이러한 관계를 상적 조응(aspectual accordance)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명사구 성분은 서술관계에 놓인 항과 상적으로 조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명사구는 서술항에서 드러내는 상을 이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을 갖춤으로써 상 표시자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문두의 '냄비 하나(一鍋飯)'와 '결상 하나(一條板凳)'는 무정성[-animate]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 '열 명이 먹(을 수 있)는'과 '학생 세 명이 앉(을 수 있)

는'이라는 서술항의 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동작에 대한 의도성을 가질 수 없는 무정성 논항을 주어로 실현시키는 것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 '상태'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논리로 b)가 행위(activity)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문두 논항의 상 자질 때문인데 '냄비 하나의 밥을 먹다', '결상 하나에 앉다'는 동작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유정성[+animate] 논항 '열 명(十個人)', '학생 세 명(三個學生)'과 조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원숭이는 바나나가 주식이다'라는 문장에서 '원숭이는'은 '주식이다'와 조용하지 못하고 '바나나가 주식이다'와 조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사건의 의미 구조는 이처럼 동사의 부가어나 논항 혹은 맥락에 의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동사의 어휘상은 단일 동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전체 요소에 의해 통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논항의 성질이나 논항의 격 교체가 다른 사건구조를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의 존현동사가 취하는 여러 논항 구조 또한 각기 다른 사건 구조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제안한 어휘 의미 형편의 기술 형식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존현문을 상기한 바와 같은 기술 형식을 통해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논항의 실현과 어떻게 상관되는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3) Stowell(1981)에 따르면 내재 논항은 동사와 결합하여 합성 동사를 이루게 된다. 이는 내재 논항이 동사의 지배 범주 안에서 작용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존현문의 경우에도 동사와 동사에 후행하는 논항이 하나의 '합성 동사'를 이루어 문두 논항의 상태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문미 논항은 동사와 더불어 서술항을 이루어 문두 논항에 조용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동사 혹은 문장 전체의 상에 조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 Ⅲ. 존현문의 의미 구조와 논항실현

중국어의 이동 동사, 존재 동사, 동태조사와 결합한 일부 타동사는 늘 하나의 논항 패턴만을 가지지는 않는다. 특히 이들이 존현문을 구성하게 될 때 기본적인 어순을 벗어나는 논항 패턴을 가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하나의 술어가 여러 형태의 논항 구조를 가진다면 그러한 논항 실현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단어의 의미 정보가 통사 구조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동사 술어의 다의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각 의미 형태가 가지는 사건구조와의 관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동사 술어가 하나 이상의 논과항 구조를 가진다면 그 논항 구조들은 각기 다른 의미 구조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중국어의 존현문은 다시 은현문과 존재문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러한 분류는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의 성질과 관련있다. 동사는 문장의 의미 구조를 생성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두 가지 문형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은현문은 대상의 출현과 소실을 나타내므로 그 대부분의 동사는 이동 동사이다. 이동 동사<sup>4)</sup>는 기본적으로 ‘來, 去, 出, 走, 出現, 下來, 上去, 回來’와 같은 동태 자동사류에 속하며 그 의미에 따라 기본적으로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한다. 실제로 이동을 하게 되는 행위주(agent) 논항, 그리고 변화된 위치(location)를 설명하는 논항으로 위치와 관련된 논항은 구체적 동사의 의미에 따라 착점(goal), 기점(source), 방향(direction)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위주 논항은 외재 논항으로 주어로 실현되고 위치 논항은 동사가 요구하는 통사적 형태-자동사의 목적어, 혹은 부사어나 보어

4) 이동 동사는 다시 행위주 이동 동사와 대상 이동 동사로 나눌 수 있다. 행위주 이동 동사는 동사의 행위주 논항이 이동하여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대상 이동 동사는 동사의 대상(theme)이 되는 논항이 다른 요인에 의해 이동하여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로 문장 내에서 실현된다.

- 5) a. 空前的繁榮出現在地球生物界了。  
전에 없던 번영이 지구의 생물계에서 출현하였다.
- b. 空前的繁榮在地球生物界出現了。  
전에 없던 번영이 지구의 생물계에서 출현하였다.
- c. 地球生物界出現了空前的繁榮。  
지구의 생물계에는 전에 없던 번영이 나타났다. (CCL 코퍼스)

5)의 a)는 행위주가 문두에 위치하고 처소사가 부사어로 실현되었고 b)는 처소사가 보어로 실현되었다. 반면 c)는 처소사가 주어로, 행위주가 문미에서 실현되고 있다. 행위주가 문미에서 실현되는 이러한 예는 존현동사가 비대격동사로 분류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Perlmutter(1978)의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sup>5)</sup>’에 따르면 존현동사의 행위주 논항은 내재 논항이다. ‘空前的繁榮’은 동사의 내재 논항으로 목적어이지만 격을 받기 위해 주어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사의 행위주는 동작을 실행시키기 위한 에너지의 출발점으로 외재 논항이므로 동작의 지배 범주에 속하는 내재 논항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주가 내재 논항이 된다는 것은 보다 더 다각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요구할 것이다.<sup>6)</sup> 그 다각적 관점 중 하나로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의미 구조적 측면에서 이 논항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동 동사는 기본적으로 달성(achievement)의 상(相)을 나타내므로 앞서

- 5) i)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  
: 어떤 자동사절은 초기 1이 아닌, 초기 2를 갖는다.  
(Certain intransitive clauses have an initial 2 but no initial 1)  
여기서 ‘initial 2’은 기저 구조의 목적어를 말하고 ‘initial 1’은 기저 구조의 주어를 말한다.
- 6) 徐杰(2001:4~5)은 비대격동사의 이 유일한 논항을 기저 형식에서의 ‘受事(theme)’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논의에서도 이 논항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예는 많다.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아래의 a)와 같은 사건 구조로 형식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 동사가 하나의 완전한 정보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착점이나 기점을 논항으로 가질 수도 있으므로 그 장소 역시 하나의 논항으로 설정한다면 아래 b)와 같이 다시 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즉, x는 행위주, z는 착점이나 기점을 나타내는 처소사이다.

- iii) 달성 : a. [BECOME[x<STATE>]]  
→ b. [BECOME[x<STATE (z)>]]

앞서 제시한 바 있는 대표적 달성 동사 ‘來’의 의미 구조도 이처럼 형식화할 수 있으며 1)과 5)의 의미 구조 또한 다음과 같은 어휘 의미 형판으로 형식화할 수 있다.

- 1') 警察昨天來了我家。<sup>8)</sup>  
→ [BECOME[警察<STATE (我家)>]]  
→ [BECOME [警察 <STATE = 警察在我家>]]  
5') a. 空前的繁榮出現在地球生物界了。

- 7) Pustejovsky(1991)에 따르면 이 달성 동사는 두 가지의 단순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이 되는데 ‘來’라는 구체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예비 과정’과 그 결과 화자가 있는 이곳에 존재하게 되는 ‘결과 상태’의 두 가지 사건이 그 내용이다. 달성 동사는 그 중 ‘과정’ 보다 ‘상태’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8) 처소사가 언제나 외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존현’의 사건이나 상황에서 존현동사 구문의 장소 논항은 외현되지 않는다 해도 인지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자의 ‘兩個客人來了’라는 발언에는 ‘來’의 착점(Goal)으로 ‘화자 자신이 있는 곳’이, ‘那個犯人跑了’에는 ‘跑’의 목적지로 ‘간혀 있던 곳의 외부’가 문장 내에 내포되어 있으며 다만 외현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장소 논항이 특정 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장 속에서 대상과 동사의 방향에 근거하여 외현되지 않은 요소를 추측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 외현되지 않는 장소 논항이 pro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他來了.’라는 문장의 의미 구조는 ‘[BECOME [他<STATE (∅)>]]’가 되고 외현되지 않은 처소사를 고려한다면 ‘[BECOME [他 <STATE = 在這裏>]]’로 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b. 空前的繁榮在地球生物界出現了。

→ BECOME[空前的繁榮 <STATE (地球生物界)>]]

→ BECOME[空前的繁榮 <STATE = 空前的繁榮在地球生物界>]]

위와 같은 의미 구조는 행위주가 이동한 위치 상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동의 주체로서의 행위주는 외재 논항이 되어 문두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행위주가 문미에서 실현된다면 그와 같은 논항 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의 의미 구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각기 다른 의미가 각기 다른 통사 형태로 실현된다는 전제는 바꾸어 말하면 각기 다른 통사 형태는 각기 다른 의미를 표상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의미 구조 또한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위주는 동작의 에너지 흐름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동작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가지는 논항이다. 따라서 동작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문장은 행위주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조동사나 행위자 지향 부사와 같은 부가어와 공기가 가능하다.

6) 我必須要走出這個房子。

난 반드시 이 방에서 나갈 거야.

他有時候爲故意進入占領區就繞了許多許多路。

그는 때로 일부러 점령지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길을 둘러갔다.

他道歉，說自己去了醫院。

그는 사과하며 스스로 병원에 갔다고 말했다. (CCL 코퍼스)

그러나 만일 행위주가 문미에 위치한다면 이러한 부가어는 공기할 수 없게 된다.

7) a. 小路上來了一個人。

작은 길로 한 사람이 왔다.

b. \*小路上要來一個人。

- c. \*小路上自己來一個人。  
 d. \*小路上故意來一個人。 (CCL 코퍼스)

만일 7)이 6)과 같이 행위주의 동작을 설명하는 문장이라면 의지를 나타내는 ‘要’와 의도를 나타내는 ‘故意/自己’ 부사어가 공기해도 성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가어가 삽입될 경우 문장은 비적격문이 되거나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들이 적격문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장 자체에 그러한 의미 표현이 존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隋娜·王广成(2009:225) 또한 이 행위자 지향 부사인 ‘故意’는 존현문의 문미 논항을 수식할 수 없으며 이로써 존현문 구조 속에서 ‘一个小孩’는 동작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가지는 행위주 논항이 아니라 ‘客體’ 즉, 대상 논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8) a. 那個小孩在地上爬。  
 그 아이가 땅에서 기고 있어.  
 a'. 那個小孩故意在地上爬。  
 그 아이가 일부러 땅에서 기고 있어.  
 b. 地上爬着一個小孩。  
 땅에는 아이 하나가 기고 있어.  
 b' \*地上故意爬着一個小孩。

隋娜·王广成(2009:225)

따라서 행위주가 문미에 있는 구문은 행위주의 동작 이행 의지가 배제된 문장임을 알 수 있으며, 행위주는 더 이상 동작을 지배하는 외재 논항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문두에 행위주가 오는 문장이 행위주의 동작 실행 여부로 인해 ‘행위주의 위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문두에 장소 논항이 오는 문장은 어떤 대상의 동작 이행의 결과 그 장소의 상태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는 즉, ‘장소의 결과 상태’를 강조하는 구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장소 논항을 문두에 위치시켜 초점화 시키는 것이다.

Grimshaw(1990)은 존현동사의 상(相)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존

현동사가 구성하는 문장이 상태 혹은 상태변화를 나타내고, 따라서 (상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사건(event)'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외재 논항역시 없다는 것이다.<sup>9)</sup> 이 때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 구조는 동작성과 동작의 결과에 따른 상태(혹은 상태 변화)성을 가지게 된다. 이지현(2006:98)은 이러한 상적 특성에 근거하여 존현동사가 이루는 구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항 구조를 설정하였다.

- i) '來'
- a. [[y DO-SOMETHING] CAUSE [y BECOME STATE]]
- a'. ((대상))<sup>10)</sup>
- a". 來了兩個人。 兩個人來了。

이처럼 달성 동사 '來' 또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완성' 사건의 의미 구조로도 형식화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어의 달성 동사와 완성 동사는 따로 구별할 수 없으며 이들은 모두 '결과'라는 상황상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다.<sup>11)</sup>

9) Grimshaw(1990)는 '상태(state)' 문장이 내재 논항을 가지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추상적인 사건구조(e)의 투사로 상(相)층위는 항상 행위(act)와 상태/상태변화(state/change of state)로 구성된다. 이 사건 틀이 우위성을 결정하며 술어의 어휘 의미와 관계없이 상(相)층위의 최우위 자리는 첫째 사건 관련 논항만 할당받을 수 있다. 모든 사건들이 이 틀에 따라 설명된다면 행위는 틀의 첫째 자리, 존재나 상태 변화는 항상 틀의 둘째 자리에 논항을 두게 된다. 해당 동사의 논항은 최우위 논항이 아니므로 외항으로서의 자격을 받지 못한다.

10) 이 때 대상은 사건 구조의 'y'항을 말한다.

11) 이은수(2009:19)는 Tai(1984)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중국어에는 '달성'과 '완성'의 구분이 없으며 이들을 모두 '결과'로 묶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영어의 '완성'에 해당하는 중국어로의 번역 대상자는 '행위'와 '결과' 중 어느 하나만을 나타내는데 이는 영어의 '완성' 상황에는 '행위'와 '결과'가 모두 포함되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어에는 '완성'과 '달성'의 구분이 없으며 '행위'와 구별되는 '결과'의 상황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 상기한 이동 동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 구조가 상술한 통사 구조로 실현될 때 그 의미 구조의 형식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 이지현(2006)의 의미 구조와 존현문의 대상화 작용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은현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 ii) a. [BECOME[y<STATE>]]  
 b. → [BECOME[y<STATE (z)>]]  
 c. → [z<RES-STATE=句首[yACT<MANNER>]CAUSE[BECOM[z<STATE>]]>]

여기서 y는 이동 동사의 내재 논항 즉, ‘대상’이 되고 z는 착점이나 기점을 나타내는 ‘처소사’가 된다. 은현문 대상의 이동(MANNER)으로 인한 처소사의 결과 상태(RES-STATE)를 나타내는 의미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1)과 5)에서 행위주가 문미에 위치하는 문장의 사건 구조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 1') b. 我家昨天來了警察。  
 → [我家<RES-STATE=句首[警察ACT<MANNER=來>]CAUSE[BECOM [我家<STATE=我家有警察>]]>]  
 5) c. 地球生物界出現了空前的繁榮。  
 → [地球生物界<RES-STATE=句首[空前的繁榮ACT<MANNER=出現>]CAUSE[BECOM[地球生物界<STATE=地球生物界有空前的繁榮>]]>]

동작성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사건 구조에 참여하는 논항은 사건을 유발하는 행위주나 원인이 되므로 이들은 외재 논항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사건 구조가 상태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면 사건 구조에 참여하는 논항은 유발된 사건의 결과에 대한 대상과 관련된다. 따라서 그 논항

은 동사의 지배를 받는 내재논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동 동사가 만들어내는 존현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는 이동 동사의 다른 자동사나 타동사가 구성하는 존재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성질에 관계없이 존현문의 구조적 틀이 표상하는 사건의 의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일정한 통사적인 틀을 문장 분석의 한 도구로 보는 이런 견해는 ‘구성문법(Construction Grammar)’에 의해 제안되기도 한다.<sup>12)</sup> 일정한 통사적 틀이 하나의 분석 도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휘들이 그 틀 속에서 만들어 내는 상(相), 혹은 사건의 의미 구조가 공통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존재문에서도 이러한 사건 구조가 드러나는지 살펴보자.

존재동사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有’, ‘存在’를 포함하며, 넓은 의미에서 ‘着’ 혹은 ‘了’와 결합한 동태 자동사도 포함한다. 이 동사 역시 완전한 정보 구조를 구성하는데 행위주와 장소 논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논항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이동 동사와 공통점을 가진다.

9) a. 却不料一個男人在床上躺著。

그런데 뜻밖에 한 남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다.

b. 却不料一個男人躺在床上。

그런데 뜻밖에 한 남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다.

c. 却不料床上躺着一個男人。

그런데 뜻밖에도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다.

10) a. 僅8000餘人在可容兩萬人的體育館坐了。

겨우 8000여 명만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 앉았다.

12) 이 구성문법 연구로는 Fillmore(1985, 1987, 1990), Goldberg(1995, 2003) 등이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句式語法(陸儉明a; 2004), 框式語法(袁毓林; 2004)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 b. 僅8000餘人坐在可容兩萬人的體育館了。  
 겨우 8000여 명만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 앉아 있다.
- c. 可容兩萬人的體育館僅坐了8000餘人。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 겨우 8000여 명만이 앉았다.
- (CCL 코퍼스)

이들 동사가 구성하는 사건 구조 또한 이동 동사와 동일하므로 동일한 형태의 문장 변환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11) a. 沙發上坐了兩個人。  
 소파위에는 두 사람이 앉았다.
- b. ?沙發上要坐兩個人。  
 c. \*沙發上自己坐兩個人。  
 d. \*沙發上故意坐兩個人。
- 12) a. 河邊上圍了兩三千人。  
 강가에는 이삼천 명이 둘러쌌다.
- b. ?河邊上要圍兩三千人。  
 c. \*河邊上自己圍兩三千人。  
 d. \*河邊上故意圍兩三千人。

11)과 12) 또한 행위주의 동작 의지를 표현하는 조동사나 부사를 첨가할 경우 의미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비적격문이 된다. 11-b), 12-b)는 ‘要’가 첨가되어도 반드시 비적격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때 ‘要’는 후행하는 논항의 동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두 논항의 공간적 수용 정도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존재문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c)와 d)는 모두 의미상 비적격문이 된다. 즉, 행위주의 동작 이행 의지는 사라지고 문장은 문두의 처소사가 가지는 결과적 상태에 주목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사건구조 또한 상술하였던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11') a. 沙發上坐了兩個人。

→ [沙發上<RES-STATE=句首[兩個人ACT<MANNER=坐>]CAUSE[B  
ECOM[沙發上<STATE=沙發上有兩個人>]]>]

12') a. 河邊上圍了兩三千人。

→ [河邊上<RES-STATE=句首[兩三千人ACT<MANNER=圍>]CAUSE  
[BECOM[河邊上<STATE=河邊上有兩三千人>]]>]

존현문에서 행위주의 동작 이행 의지 여부는 일부 타동사로 이루어진 존재문에서 더 쉽게 알 수 있다.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행위주와 대상이라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지지만 그 타동사가 만일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동의 착점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논항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13) 他把一本書放在桌子上。

13)에서 '放'은 모종의 장소에 있던 대상 '一本書'를 '桌子上'으로 이동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상 이동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 구조가 '행위주를 출발점으로 하는 에너지가 대상 논항의 위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전제할 수 있다면, 대상 이동 동사의 사건 구조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주를 x, 대상을 y, 착점/방향을 z로 설정하도록 하자.

13') 他把一本書放在桌子上。

[[xACT<MANNER[z<LOCATION>]>]CAUSE[BECOM[y<STATE>]]]  
→ [[他ACT<MANNER=放[桌子上<LOCATION>]>]CAUSE[BECOM[一本書  
<STATE=書在桌子上>]]]

위의 의미 구조가 나타내는 바는 행위주가 '放'이라는 방식의 동작을 이 행한 결과 대상인 '一本書'가 이동하여 '桌子上'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으

로, 이를 통해 사건 전체는 원인에 해당하는 전자와 결과에 해당하는 후자의 두 개 사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은 위치 이동을 통한 ‘대상의 결과 상태’에 집중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화자가 이 문형을 존현문의 구조로 만든다면 문장은 다시 두 개의 논항만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때 그 두 논항은 대상과 장소이며 행위주 논항은 외현될 수 없다. 또한 문장은 ‘대상’이 아닌 ‘착점/방향 논항의 결과 상태’에 집중하게 된다. 그 사건 구조는 아래와 같다.

14) 桌子上放着一本書。

[[xACT<MANNER[z<LOCATION>]>]CAUSE[BECOM[y<STATE>]]]  
 → [z<RES-STATE[∅ACT<MANNER>]CAUSE[BECOM[y<STATE>]]>]  
 → [桌子上<RES-STATE=桌子上有一本書[∅ACT<MANNER=放>]CAUSE[BECOM[一本書<STATE=書在桌子上>]]>]

이 문장의 의미 구조 또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복합적 사건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 속에서 사건 참여자가 ‘∅’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구체적 논항으로 외현될 경우 문장은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거나 비적격문이 될 수도 있다.

14') ?桌子上那個朋友放着一本書。

이러한 사실을 앞서 살펴본 이동 동사와 존재 동사의 존현문과 관련지어 보면 존현문의 논항 구조 자체가 동작의 이행 의지를 가지는 행위주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에 따르면 타동사는 동작의 지배자인 행위주 논항, 동작의 지배를 받는 대상 논항을 기본 구조로 취하게 된다. 그런데 타동사가 존재문을 구성할 경우 행위주 논항은 외현될 수 없다. 이러한 통사 장치로 인해 어떤 동사로 이루어진 존현문이라고 해도 행위주는 더 이상 외재 논항이 되지 못하고 동작의 한

구성 요소로서 내재 논항이 되며, 문두의 장소 논항은 대상물의 이동 착점으로 문장 전체에서 초점화 되고 있는 것이다.

존현문의 사건 구조가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은 시량사와의 공기 제약으로도 알 수 있다. 사건의 시작점부터 대상의 변화에 이르는 과정과 그 결과는 사건의 종결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외재 논항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시작되어 동작을 거쳐 목표 대상에 에너지와 동작의 결과가 작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장 속에서 시량사는 그 과정의 시량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존현문에서는 우선 동사의 행위주가 외현되지 않거나 내재 논항화되어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 종결점도 제시되지 못한다. 따라서 존현문은 시량사구와 공기할 수 없다는 통사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14") \*桌子上放着三天一本书。

이처럼 중국어의 존현문을 구성할 수 있는 동사는 자동사도 될 수 있고 타동사도 될 수 있으며,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순간동사도 될 수 있고 지속성을 지니는 비순간동사도 될 수 있다(他來了几个客户). 동태성이 강한 동작 동사도 될 수 있고(屋子里坐着一个人), 정태성이 강한 상태동사도 될 수 있다(外面是一片漆黑). 그러나 이 동사들이 모두 존현문의 구조를 갖추게 되면 '결과 상태'의 사건 구조를 가지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상적 특징은 문장의 문두 논항, 문미 논항의 상적 자질과 연관되기도 하며, 이로 말미암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대격성을 가진 존현동사가 외재 논항 없이 내재 논항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13)</sup>

13) 오충연(2006:73)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를 재인용하자면 van Voorsr(1988), Grimshaw(1990), Pustejovsky(1991), Tenny(1994), Travis(2000) 등의 논의에서 논항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 동사의 의미를 분해하여 사건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상이 결정하는 논항의 위치를 설정하여 통사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건부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논항과 논항

이로서 중국어의 존현문이 가지는 사건의 의미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문장의 장소 논항을 초점화하여 그들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 구조로 표상된다. 여기에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沈家煊(1999:6)은 문법 연구에 있어서 분석과 종합의 융합을 주장하면서 인지영역 간의 투사는 부분을 조합하는 투사가 아니라 ‘Gestalt’의 투사라고 보았다.

15) a. There's Harry.

b. Harry is there.

16) a. There's the beep.

b. \*The beep is there.

(沈家煊 1999:6)

이와 같은 비대칭 현상에 대해 沈家煊(1999)은 15)의 ‘There's Harry’는 ‘보게 된 사물의 공간 위치를 가리키는’ 전형적 문장 형식이며 이는 하나의 ‘Gestalt(完形)’로서 그 의미는 문장 내 개별 성분 간의 간단한 조합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16)의 경우는 시각적 영역을 표현하는 문장 형식이 청각적 영역에 대한 표현으로 투사되어 ‘There's the beep’이라는 적격문을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듣게 된 소리의 공간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the beep’의 존재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와 같은 변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또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문장의 생성에 우선 작용함을 의미한다. 화자가 문장을 만들 때,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어휘들을 선택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사건을 하나의 전체, 즉 ‘Gestalt(完形)’로 인식하여 무엇을 말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그 ‘무엇’에 대한 결정이 문장의 상, 구조, 논항 등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현실 세계의 상황

---

의 통사적 위치이며,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에 대해 상 구조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자체가 아무리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해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언어 자료들은 일단 화자의 인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들이기 때문에 오충연(2006)은 화자가 인식하는 ‘상황’은 현실 세계 속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측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표현된, 화자의 지각 내용 속의 상황’ 혹은 반대로 ‘화자의 지각이 반영되어 언어로 형상화된 상황’이라고 보았다. 문장을 생성할 때 어휘 선택이나 어순 배열에 화자의 인지적 태도가 반영되듯이 문장의 상 또한 그 상황 혹은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지적 태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충연(2006:132)은 언어화되지 않은 상태의 지각내용에는 여러 참여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 중 어떤 것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황 진술에 따른 상과 동사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장은 크게 주제와 주제에 대한 서술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주제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지적 태도 속에서 상정되는 것이다. 중국어와 같은 주제 부각형 언어에서 문두 논항의 성질이 나머지 논항의 구조적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따라서 논항을 사건 구조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지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존현문에는 ‘有’와 ‘是’와 같은 존재 동사 외 동작을 표현하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출현할 수 있으며 이들 동사 자체는 상태, 행위, 성취, 완수 등의 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존현문의 구조적 틀 속에 삽입된다면 결과 상태의 의미 구조로 표상되는데 그 이유는 존현문의 문장 구조속에서 동사들은 동작의 이행 의지를 가진 행위주 논항과 호응하지 않고, 문두의 장소 논항에 호응하기 때문이다.

#### IV. 나가기

일반적으로 외재 논항으로서 주어 위치에서 실현되는 행위주가 문미에 놓인다면 그것이 나타내는 언어적 효과가 분명 문두에 놓이는 경우와 다

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항 실현 형태를 중국어의 경우 존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존현문을 구성하는 동사들이 행위주 논항을 문미에 놓는 이유, 그래서 그 동사가 비대격을 형성하는 이유를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의미 구조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존현문을 구성하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논항 구조를 살피고, 실현되는 논항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사건 구조를 형성하게 됨을 살펴보았다. 이를 Levin and Rappaport의 어휘의미 형편에 따라 기술하여 본 결과 존현문은 ‘결과 상태(res-state)’의 사건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상태는 존현문을 구성하는 동사의 어휘적 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인지내용을 반영하여 논항의 성격과 위치가 의미 구조의 표상 형태이다. 장소 논항이 문두에 위치하고 행위주 논항이 문미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존현문은 이동 대상이 존재하거나 사라지는 그 장소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문미의 행위주는 동작 이행자가 아닌 이동의 대상으로서 문장 내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결과 상태의 존현문 내에서 행위주 논항은 동작을 지배하는 외재 논항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존현문의 가장 보편적 유형만을 대상으로 삼고 처소 문두 논항이 외현되지 않은 문형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진한 부분을 남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유형의 존현문의 pro를 설정할 수 있는 지, 그 pro의 논항성에 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존현문 분석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긴다.

#### < 參考文獻 >

- Dowty, David R,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Boston: D. Reidel Pub. Co, 1979.
- Fillmore, C. Lowe John B & Baker, “A frame-Semantic Description” in

- Fillmore & Langedoen(eds), 1997.
- Goldberg, Adel, E, *Construction :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Grimshaw, J, "Argument Structure", *LI Monograph*, Cambridge: The MIT Press, 1990.
- Levin and Rappaport,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 Perlmutter, David, "Impersonal Passive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Proceedings of the 4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978.
- Pustejovsky,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1991.
- Pustejovsky,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MIT Press, 1995.
- Stowell, T, *Origins of ph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1981.
- Vendler, Z.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k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김광조, <북경 중국어의 존현문과 능력 가설>, 《중국어문학》, Vol.28 No.1, 1996.
- 남승호,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7.
- 오충연, 《상과 통사구조》(태학사: 서울), 2006.
- 우창현, <문장 차원에서의 상 해석과 상 해석 규칙> 《국어학》, Vol.41 No.-, 2003.
- 이은수, <현대중국어의 상황상 연구> 《中國學論叢》, Vol.26 No.-, 2009.
- 이지현, <현대중국어 능력동사 초탐: 비대격동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연구회》, Vol.- No.40, 2006.
- 이창호, <상과 중국어의 결과보어> 《中語中文學》, Vol.22 No.-, 1998
- 黃正德鄭池秀(번역자), <논항이론과 중국어 동사 논항구조 연구 (1)> 《中國語文論譯叢刊》, Vol.25 No.-, 2009.

- 陸儉明, <詞語句法、語義的多功能性: 對“構式語法”理論的解釋> 《外國語》, 02期, 2004a.
- 陸儉明, <“句式語法”理論與漢語研究> 《中國語文》, 05期, 2004b.
- 隋 娜·王廣成, <漢語存現句中動詞的非賓格性> 《現代外語》, 03期, 2009.
- 沈家煊, <語法研究的分析和綜合> 《外語教學與研究》, 02期, 1999.
- 徐 傑, <“及物性”特征與相關的四類動詞> 《語言研究》, 03期, 2001.
- 袁毓林, <論元結構和句式結構互動的動因、機制和條件> 《語言研究》, 04期, 2004.
- 趙彥春, <Burzio內論元說証偽> 《現代外語》, 02期, 2001.

### <中文提要>

一般來說,以外部題元而實現在主語位置的施事題元, 如果它置於句尾, 這位置上的變化會引起不同的語言效果, 這是很容易預料到的。

在漢語的存現句裏, 也會發現這樣的題元結構。本考預測存現句裏的主體題元能置於句尾的原因, 以及動詞形成非賓格現象的原因在於動詞事件表現的意義結構。為此, 首先筆者考察了動詞的事件結構與記述句子意義的方法, 然後對存現句的動詞性格分類, 再分析了存現句的題元結構和事件結構的相關性。按照Levin and Rappaport的‘詞彙意義template’理論, 不管動詞本身的體貌是什麼, 存現句都表示‘結果狀態(res-state)’的事件結構。處所題元在句首的存現句, 表示移動對象存在或消失的‘處所的結果狀態’, 所以句尾的施事題元不是以動作的主體而是以移動對象存在於句內。

주제어 : 存現句, 事件結構, 結果狀態, 論元, 內在論元